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인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 비교분석

202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도 현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 비교분석

임 인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도 현

인 준 서

김도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가창곡의 비중과 종류,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국악 가창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악 가창곡의 비중 변화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전체 비중을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이 변화되면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교육과정 4.55%, 3차 교육과정 14.78%, 4차 교육과정 11.09%, 5차 10.70%이며 6차 교육과정에서 23.59%로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비중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7차 29.01%, 2007 개정 교육과정 30.74%, 2009 개정 교육과정 23.88%, 2015 개정 교육과정 30.7%로 나타났다.

둘째, 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국악 가창곡의 수록 횟수는 총 329회이며 종류별로 살펴보면 민요가 225회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가야금병창과 시조가 3회로 가장 적게 수록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수록 횟수가 가장 많은 국악 가창곡 7곡을 중심으로 학습 요소별 주요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 부르기 학습활동에서는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와 ‘시김새를 살려 부르기’가 주로 제시되었다.

둘째, 악기연주 학습활동에서는 모든 곡에 ‘장구 장단 치기’가 제시되었고, ‘제재곡의 장단 알고 부르기’가 다섯 곡에, ‘단소 연주하기’는 네 곡에 제시되었다.

셋째, 신체 표현하기 학습활동에서는 동부 민요 ‘옹헤야’에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신체로 표현해보기’ 활동이 제시되었으며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에서는 부채춤을 보고 한강수타령의 음악에 맞춰 신체를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넷째, 음악 만들기 학습활동에서는 '가사 지어 바꾸어 부르기'가 다섯 곡에 제시되었고, '가락 지어 바꾸어 부르기'는 세 곡에서 제시되었다.

다섯째, 감상 학습활동에서는 주로 제재곡과 같은 지역의 민요를 감상하거나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에서는 서편제의 영화 장면에서 나타난 제재곡을 감상하도록 제시되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2
II. 이론적 배경	3
1.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 교육 변천	3
1)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	3
2) 제2차 음악과 교육과정	4
3)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	4
4)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	5
5)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	6
6)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	6
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7
8)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8
9)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9
10)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0
2. 국악 가창곡의 종류 및 특징	11
1) 가곡	11
2) 가사	12
3) 시조	13
4) 판소리	13

5) 잡가	14
6) 민요	15
3. 선행연구 고찰	17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방법	24
Ⅳ.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 비교분석	27
1. 중학교 음악 교과서 별 국악 가창곡의 비중 변화	27
1)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전체 비중 변화	27
2)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종류에 따른 비중 변화	29
2.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학습활동 변화	37
1) 동부 민요 ‘옹헤야’	37
2) 동부 민요 ‘한오백년’	47
3) 동부 민요 ‘신고산타령’	53
4) 경기민요 ‘닐리리야’	58
5) 서도민요 ‘몽금포타령’	64
6)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70
7)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74
V. 결론 및 제언	83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22
<표 2> 국악 가창곡의 학습 요소별 분석기준	25
<표 3>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국악 가창곡	26
<표 4> 국악 가창곡의 학습 요소별 분석기준	26
<표 5>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비중	27
<표 6> 교육과정별 수록된 가곡 제재곡	29
<표 7> 교육과정별 수록된 시조 제재곡	30
<표 8> 교육과정별 수록된 민요 제재곡	31
<표 9> 교육과정별 수록된 판소리 제재곡	33
<표 10> 교육과정별 수록된 가야금병창 제재곡	34
<표 11> 교육과정별 수록된 창작 국악 제재곡	3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악 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비중이 증가하여 6차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국악 교육의 중요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¹⁾

국악은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존재해 온 우리 음악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 조상들의 희로애락을 대변해 온 ‘삶’ 자체였기 때문에 문화적·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고유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 이유는 각각의 민족들이 가진 문화가 독특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악 교육이 교육과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²⁾

특히 국악에서 ‘가창’은 간단하게 따라 부르기, 시김새 등을 접목하여 재미와 맛을 살려 부를 수 있다. 또한 빠르기를 달리고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거나, 상대방과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를 할 수 있다.³⁾

따라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가창 활동을 통해 국악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음악적 학습 요소를 익힐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음악적 소양을 기르고 국악의 가치를 인식하여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국악 교육의 성과는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국악 관련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

1) 윤명월 외 11명(2018). 국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p.100.

2) 상계서. p.4.

3) 국립국악원(2002). 국악교육체계화연구가창편. 서울: 도서출판. p.9.

과서 내 국악 가창곡의 변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 분석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국악 가창 분석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가창곡의 비중과 종류,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국악 가창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국악 가창곡의 전체 비중과 종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둘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가창곡의 주요 학습활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

1)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1955~1962)

제1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과거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치중하였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하여 학생과 관련이 깊은 일상생활에서 교육내용을 찾도록 한 점이 두드러진다.⁴⁾

제1차 교육과정의 음악과의 일반 목표는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월만한 인격을 갖추므로써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름에 있다. 중학교 음악과의 목표는 음악 교육의 일반 목표에 따라 가창, 기악 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 등의 습득으로 크게 나눈다.⁵⁾ 이 중 감상영역에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요와 악기 및 음악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학년별 지도목표의 감상영역에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요와 외국 민요도 감상하고, 우리나라 민족악기, 국악기, 아악기의 음색의 특징과 그 음악을 감상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4) 권덕원 외 3명(2016). 제3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p.142.

5) 문교부령 제45호 「제1차 교육과정」 p.101~107.

2) 제2차 음악과 교육과정(1963~1973)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에 공포되었고 이후 10여 년간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교과과정’ 대신 ‘교육과정’이라고 지칭하였다. 개정의 취지는 기초 학력의 제고와 인격 도야 및 실생활 관련성의 강화였으며, 전반적으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다.⁶⁾

제2차 교육과정의 음악과의 일반 목표에서는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어, 음악을 즐기는 심정과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쁨으로써 일상생활을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⁷⁾라고 서술된 내용이 특징적이다. 또한, 학년별 지도목표의 가창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 부르기, 여러 장조와 단조 및 우리나라의 음계로 이루어진 가곡 부르기가 공통으로 서술되어 있고 감상영역에서는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고상하고 유명한 음악(민요 포함)의 감상 및 이해가 서술되어 있다.

3)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1973~1981)

제3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 사조가 교육의 수준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후 개발된 것인데, 당시는 이른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체제 면에서 전반적으로 제2차 교육과정과 유사하다.⁸⁾

제3차 교육과정의 음악과의 일반 목표에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를 이해시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음악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⁹⁾라고 서술된 내용이 특징적이다. 또한, 학년별 내용을 보면 가창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노

6) 민경훈 외 11명(2019). 3판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p.191.

7) 문교부령 제120호 「제2차 교육과정」 p.85~101.

8) 전개서. p.192.

9) 문교부령 제325호 「제3차 교육과정」 p.71~82.

래, 우리나라 음계로 이루어진 노래, 민족적인 가락의 노래를 부른다고 서술되어 있다. 기악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리듬 악기를 세련되게 연주하고, 가창에서 이미 학습한 여러 조의 음계와 화성을 악보에 의하여 능숙하게 연주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음악과 서양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감상, 우리나라 음악의 독특한 형식과 주법 및 연주 형태를 체감 이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체감, 이해하고,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산조, 국악, 합주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감상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4)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에 만들어졌으며 약 8년간 사용되었다. 이때는 소위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경향을 수용하고자 하였다.¹⁰⁾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는 첫째,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적인 악곡을 스스로 독보하며 듣고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악곡을 개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며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셋째,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른다.¹¹⁾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학년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국악 교육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고,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전통음악을 각 영역의 학습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으며, 리듬 학습의 소재로서 전통음악의 장단을 활용하는 일, 가창과 기악 학습에서 민요를 소재로 삼는 일 등 모든 학습활동 속에서 전통음악의 소재를 다루도록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10) 민경훈 외 11명(2019). 3판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p.192.

11) 문교부 고시 제442호 「제4차 교육과정」 p.48~53.

5)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에 개발되어 이후 약 6년간 사용¹²⁾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다. 또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문교부는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을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였다.¹³⁾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는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¹⁴⁾라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학년 목표 및 내용으로 구분되었으며, 내용은 다시 표현 영역과 감상영역으로 나누어졌다. 표현 영역에서는 장조, 단조 및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쓰이는 조 등으로 이루어진 악곡을 표현하기가 감상영역에서는 장조, 단조 및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쓰이는 조로 이루어진 악곡의 특징을 비교·파악하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체험·이해하기, 민요·구군악·농악·산조·합주·판소리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감상하기,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의 음색과 그 배합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감지하도록 서술되어 있다.

6)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에 개발되어 약 6년간 사용¹⁵⁾되었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개성이 있고 자율적인 사람, 창의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

12) 전개서. p.193.

13) 권덕원 외 3명(2016). 제3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p.145.

14) 문교부 고시 제87-7호 「제5차 교육과정」 p.56~61.

15) 민경훈 외 11명(2019). 3판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p.194.

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 등을 추구하는 인간상과 제5차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을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방향으로 삼았다.¹⁶⁾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육의 주목표는 학생 개개인에게 그들의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켜,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개발된 풍부한 음악성은 학생 개개인에게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창조적 표현 능력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음악 능력을 지닌 사람은 결국 한 나라의 음악 문화 창달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전통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음악과의 성격을 서술하고 있다.¹⁷⁾ 학년별 내용은 이해,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으로 나뉘었으며, 표현 영역에는 세마치장단, 굿거리, 자진모리장단 장단 치기가 감상영역에는 전통 가곡, 예술가곡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성악곡(단소, 잡가, 판소리, 범패)을 감상하기, 대취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산조, 연례악)을 감상하기, 전통음악의 특징에 관하여 관심 가지기가 서술되어 있다.

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1997~2007)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에 개발되어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시기에 사용되었다. ‘세계화, 정보화, 다양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 공통과 선택을 조화시킨 교육과정을 지향하였다.¹⁸⁾

16) 권덕원 외 3명(2016). 제3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p.146.

17)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제6차 교육과정」 p.71~7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첫째,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둘째,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셋째,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¹⁹⁾라고 서술되어 있다. 학년별 내용을 이해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나누었으며, 교수·학습 방법으로 전통음악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도 방법을 개발하고, 전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8)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은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고,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은 개정 중점방향을 ‘활동’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음악의 생활화를 중시하는 교육과정, 세계음악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에 두었다.²⁰⁾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²¹⁾라고 서술되어 있다. 학년별 내용은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으로 나뉘었으며, 활동 영역에는 가곡, 민요 부르기, 시조의 초장 및 창작 국악 곡과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이해 영역에서는 악곡의 특징(시조, 판

18) 민경훈 외 11명(2019). 3판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p.194.

19)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제7차 교육과정」 p.262~272.

20) 권덕원 외 3명(2016). 제3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p.147~148.

2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개정 교육과정」 p.148~162.

소리, 창극, 시나위), 악곡의 종류(시조, 가곡, 판소리), 시대에 따른 악곡의 종류 이해하기, 생활화 영역에서는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등 국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관한 것들이 서술되어 있다.

9)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9 음악과 교육과정은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과 체제를 반영하기 위한 필요성과 둘째, 직전 교과교육과정인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개정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²²⁾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목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²³⁾라고 서술되어 있다. 학년별, 영역별 학습활동을 보면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뉘며, 표현 영역에서는 악곡의 말 붙임새, 장단의 세를 표현, 악곡 토리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노래 부르기, 민요, 판소리의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르기, 악보를 보고 부르기, 악곡의 음악적 특징(박

22) 권덕원 외 3명(2016). 제3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p.153~154.

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09 개정 교육과정」 p.194~202.

자, 장단, 셈여림, 빠르기, 한배, 가락 등)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기가 생활화 영역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세계 인류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의 음악 유산에 대해 조사·발표하고 그 가치를 찾아본다고 서술되어 있다.

10)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과는 다양한 특성을 통해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성취기준을 보면 표현 영역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들어 표현,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기,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감상영역에서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생활화 영역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가하기, 음악과 관련된 산업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을 조사하여 발표하기²⁴⁾라고 서술되어 있다.

2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개정 교육과정」 p.285~294.

2. 국악 가창곡의 종류 및 특징

1) 가곡

가곡은 소규모의 관현악 반주에 시조시를 노래하는 성악곡으로서, 5장 형식으로 대여음 - 1장 - 2장 - 3장 - 중여음 - 4장 - 5장 - 대여음의 순서로 연주한다.²⁵⁾ 가곡의 역사는 고려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음악적으로는 1572년의 악보인 「금합자보」에 초기 가곡의 모습으로 보이는 <만대엽>이 수록되어 전한다. 1610년의 악보인 「양금신보」에는 <만대엽>과 <중대엽>이 수록되었고 <삭대엽>에 관한 언급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 오늘날 가곡의 모체가 되는 대엽조 악곡들, 즉 만대엽 · 중대엽 · 삭대엽의 삼기곡이 틀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 영조 무렵의 기록에는 너무 느린 <만대엽>은 사람들이 싫어하여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으며, 17~18세기에는 <중대엽>과 <삭대엽>이 널리 불렸다. 19세기 이후는 <중대엽>마저 도태되고 <삭대엽>만이 남아서 다양한 변주곡과 파생곡을 낳으며 가곡의 틀을 갖추었다. 오늘날 전승되는 가곡이 <삭대엽>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은 현행 가곡의 중요한 곡목 이름에 <초삭대엽(초수대엽)> · <이삭대엽(이수대엽)> · <삼삭대엽(삼수대엽)> · <편삭대엽(편수대엽)> 등의 명칭이 남아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가곡의 장단은 기본 장단과 편 장단의 두 가지가 있다. 기본 장단은 한 장단이 16박으로 구성된다.²⁶⁾ 가곡에 사용되는 조는 우조와 계면조이다. 우조는 황 · 태 · 중 · 임 · 남의 5음으로 구성되는 5음 음계이고, 계면조는 황 · 중 · 임의 3음이 중심이 되는 음계이다. 그리고 한 곡 안에 우조와 계면조가 같이 들어 있는 것을 반우 반계라고 한다.²⁷⁾ 가곡의 반주

25) 이성천 외 3명(2009).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p.135.

26) 김영운(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p.195~196.

27) 전개서. p.137

악기들은 거문고 · 가야금 · 세피리 · 대금 · 해금 · 단소 · 장고 등이 편성된다.²⁸⁾

2) 가사

가사는 가곡의 사설보다는 비교적 장편의 가사를 지녔으며, 어느 한 곡조에 여러 가사를 얹어 부르는 시조와는 달리 정해진 곡조는 정해진 사설만을 노래한다.²⁹⁾ 가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단지 농암 이현보가 어부사를 지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사는 모두 12곡으로 백구사 · 황계사 · 죽지사 · 춘면곡 · 어부사 · 길군악 · 상사별곡 · 권주가 · 수양산가 · 양양가 · 처사가 · 매화타령 등이다.³⁰⁾ 가사의 장단은 6박 단위의 장단과 5박 단위의 장단 두 가지이다. 6박 장단의 곡은 백구사 · 황계사 · 죽지사 · 길군악 · 수양산가 · 매화타령 · 춘면곡의 8곡이다. 5박 장단은 상사별곡 · 처사가 · 양양가의 3곡이고, 권주는 일정한 장단 없이 자유로운 장단으로 부른다. 가곡이 전주와 간주의 틀을 갖추고 관현악기의 반주를 수반하는 음악인 데 비하여, 가사는 일반적으로 장구와 한두 가지의 관악기가 노랫소리를 따라가며 반주하는 ‘수성가락’으로 반주한다.³¹⁾

28) 서한범(2014). **개정판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p.161.

29) 상계서. p.167.

30) 이성천 외 3명(2009).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p.143.

31) 김영운(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p.206~207.

3) 시조

시조는 시조시로 노랫말로 삼아 정가 풍의 발성으로 노래하는 풍류방 성악 곡의 하나로, 문학 작품인 시조시와 구별하기 위해 시조창이라고도 한다.³²⁾ 최초의 시조가 실려 있는 악보는 서유구의 「유예지」와 이규경의 「구라철사금보」이다.³³⁾ 시조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원형이 되는 시조는 평시조이고, 여기서 지름 시조 · 사설시조 등으로 변져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는 표준적인 서울 중심의 경제에 대하여 향제로 구분하고, 향제에는 충청도 지방의 내포제, 전라도 지방의 완제, 경상도 지방의 영제 등이 있다. 경제나 향제의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대개 황 · 중 · 임의 3음 음계의 계면조로 되어 있고, 지름 시조나 사설지름시조는 황 · 중 · 임 · 무의 4음 음계의 계면조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시조의 반주 악기로는 장고 · 세피리 · 대금 · 해금 등을 기본 편성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장고 반주만으로도 부를 수 있고, 장고도 없으면 무릎장단으로라도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³⁴⁾

4) 판소리

판소리는 한 사람이 창을 하면서 소리와 아니리와 발림을 섞어 가며 긴 이야기를 연출하는 극음악의 하나로, 한 사람의 고수가 복장단을 쳐서 반주한다. 소리는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음정 있는 가락을 의미하고, 아니리는 소리와 소리 사이에 설명 또는 대화식으로 어떠한 장면이나 사실을 말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단의 반주 없이 자유 리듬으로 한다. 발림이란, 소리하

32) 김영운(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p.214.

33) 이성천 외 3명(2009).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p.145.

34) 서한범(2014). 개정판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p.169.

면서 몸짓으로 여러 가지 표정을 실감 나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³⁵⁾ 송만재의 「관우희」에는 판소리 12마당이 기록되어 있다. 즉 춘향가 · 심청가 · 흥부가 · 수궁가 · 적벽가 · 가루지기타령 · 배비장타령 · 장끼타령 · 옹고집타령 · 강릉매화타령 · 알짜 타령 · 가짜신선타령 등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가운데 5마당 즉, 춘향가 · 심청가 · 흥부가 · 수궁가 · 적벽가 등이 전해지고 있다.³⁶⁾ 판소리는 전라도 · 충청도 서부와 경기도 남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생성 · 발전하였는데, 흔히 섬진강 동쪽 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라 하고, 섬진강 서쪽의 소리제를 서편제라 한다.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한다.³⁷⁾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은 진양조장단 · 중모리장단 · 중중모리장단 · 자진모리장단 · 휘모리장단 · 엇모리장단 · 엇중모리가 있고, 판소리의 조에는 계면조 · 우조 · 평조 · 경드름 · 설령제(덜령제) · 추천목 · 기타 메나리조 · 강산제 · 석화제가 쓰이지만, 선법명으로 쓰인 것은 우조(평조) · 계면조에 지나지 않고, 그 밖에는 조의 이름인지 창법의 스타일인지 분간하기 힘들다.³⁸⁾

5) 잡가

잡가는 서민 · 대중 등 기층 민중들이 즐기던 음악 중 특별히 음악에 전문성을 가진 소리꾼들의 음악³⁹⁾을 가리키며 불렸던 지역에 따라 경기 잡가, 서도잡가, 남도 잡가가 있는데, 경기 잡가는 다시 12잡가와 휘모리잡가로 구별된다. 12잡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지역에서 불렸던 잡가로서, 유산가 · 적벽가 · 제비가 · 집장가 · 소춘향가 · 선유가 · 형장가 · 평양가 · 달거리 · 십

35) 상계서. p.172.

36) 이성천 외 3명(2009).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p.160.

37) 김영운(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p.245.

38) 서한범(2014). **개정판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p.173.

39) 전계서. p.260.

장가 · 출인가 · 방물가 등을 말한다. 휘모리잡가는 12잡가와 비교해 속도가 빠르며, 그 가사 내용이 해학적이고 재미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휘모리잡가로는 곱보타령 · 생매잡아 · 만학천봉 · 육칠월 흐린 날 · 한잔 부어라 · 병정타령 · 순검타령 · 기생타령 · 바위타령 · 비단타령 · 맹꽁이타령 등이 있다. 서도잡가는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불린 잡가로서, 서도민요 선법으로 되어 있으며 사설이 특히 길고, 장단 없이 노래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해지는 곡으로 공명가 · 사설공명가 · 제전 · 초한가 · 추풍감별곡 · 적벽부 · 관동팔경 · 영변가 · 관산음마 등이 있다.⁴⁰⁾ 남도 잡가는 전라도 지방에서 전문 음악인들이 부르던 잡가로 보렴 · 화초사거리가 대표적이다.⁴¹⁾

6) 민요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생겨나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노래들을 말한다. 민요가 어느 정도 파급되었는가에 따라 통속 민요와 토속민요로 나누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특성에 가졌는가에 따라 경기민요 · 남도민요 · 동부민요 · 서도민요 · 제주민요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⁴²⁾ 경기민요는 서울 · 경기 지방을 비롯해 충청도 일부를 포함하며, 경기민요의 종류는 노랫가락 · 창부타령 · 아리랑 · 긴아리랑 · 이별가 · 청춘가 · 도라지타령 · 노들강변 · 사발가 · 베틀가 · 태평가 · 오봉산타령 · 양산도 · 한강수타령 · 경북궁타령 · 널리리야 · 군밤타령 등을 비롯하여 많은 민요가 있으며, 경기민요의 음계는 5음 음계의 평조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장단은 굿거리 · 세마치장단 · 타령장단 등이다. 경기민요의 특징은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점이다. 남도민요는 보렴 · 새타령 · 육자배기 · 농부가 · 진도아리랑 · 까투리타령 · 강

40) 이성천 외 3명(2009).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p.167~169.

41) 김영운(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p.273.

42) 전개서. p.170.

강술래 등 많은 곡이 있다. 남도민요의 음계는 주로 3~4음 음계의 계면조로 되어 있고, 경기 지방의 서정적인 발성에 비해 매우 극적이며, 굽은 목을 눌러 내는 특유의 발성법을 쓰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특히, 떠는 목의 농음과 꺾어 내는 전타음이 처리는 매우 기교를 요하기도 한다. 장단은 판소리나 산조의 장단을 쓰는데, 중모리장단 · 중중모리장단 · 자진모리장단 등이 많이 쓰인다. 서도민요는 평안도의 수심가, 황해도의 난봉가 · 몽금포타령 등이 있다 서도민요는 5도 위에 3도를 쌓은 음계가 많은데, 으뜸음 위의 5도 음을 떨어 주는 창법이 다른 지방에 비해 특징적이다. 또한, 서도민요는 다른 지방의 민요에 비하여 기악 반주를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동부 민요는 태백산 동쪽의 강원도 · 함경도 · 경상도 일대를 포함하며 강원도의 민요로는 한오백년 · 강원도아리랑 · 정선아리랑 등이 대표적이고, 함경도 민요로는 신고산타령 · 궁초댕기가 경상도의 민요로는 밀양아리랑 · 울산아가씨 · 쾌지나칭칭나네 · 보리타작소리(일명 옹혜야) 등을 들 수 있다. 동부 지방의 민요들은 4도 위에 3도를 쌓은 음계가 많고, 대개 빠른 장단이 많이 쓰여 흥겹고 경쾌한 점이 특징이다.⁴³⁾ 제주민요는 음악적 특징으로 보아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민요들과 육지의 영향을 받은 민요들이 공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민요는 경기민요 또는 서도민요와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문 소리꾼들의 교류가 어려웠으므로 통속 민요보다는 토속민요가 더 많이 발달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민요는 오돌또기 · 이야흥타령 등이 잘 알려져 있다.⁴⁴⁾

43) 서한범(2014). 개정판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p.178~180.

44) 이성천 외 3명(2009).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p.177.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가창 영역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가창 영역에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효선(2008)⁴⁵⁾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에서는 국악 가창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에서의 국악 가창 내용의 문제점을 알아본 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창 내용 중 국악 가창 내용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국악 가창곡의 내용이 일부에 편중되어있다. 둘째, 전체적인 장르가 민속악 위주이고, 가창곡의 곡목도 일부의 민요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며 경기, 동부 민요에 편중되어있다. 셋째, 장단의 경우는 굿거리장단과 세마치장단에 편중되어있다. 넷째, 기보법은 오선보 위주로, 전통음악 표현에 적절한 정간보는 보조 악보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 제작될 교과서에서는 국악 가창 내용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하고, 민요에 편중되어있는 제재곡을 정악, 창작곡 등의 장르를 수록하여 국악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국악 가창 내용의 구체적 제시, 다양한 국악 가창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가현(2012)⁴⁶⁾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제재곡 비교연구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악 · 가창 영역을 중심으로-”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45) 김효선(2008).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 김가현(2012).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제재곡 비교연구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악 · 가창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한 중학교 1학년 9종 음악 교과서와 2007 개정 교육과정 16종 교과서의 국악 제재곡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7차 교육과정 9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기악곡의 수는 18곡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수록된 16종 교과서 중 기악곡의 수는 48곡으로 늘어났다. 둘째, 7차 교육과정 9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가창곡의 수는 45곡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수록된 16종 교과서 중 국악 가창곡의 수는 69곡으로 늘어났다. 셋째, 국악 가창곡의 경우 잡가가 빠지고 단가와 제례악이 추가되어 국악 제재곡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제재곡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 분량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중학교에서 한국 기악곡을 중심으로 한 현장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한국 악기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 가창곡은 음악 교육 자체에서 민요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국악 시조 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국악 창작곡이 많이 수록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상기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악 가창곡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가창곡을 기악 영역에 활용하여 기악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감상 및 창작영역까지 확대해 국악 영역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심미선(2014)⁴⁷⁾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 국악 가창 내용 중심으로”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중 국악 가창 내용에 관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에 따라 얼마나 타당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중학교 17종 음악 교과서 국악 가창 내용을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별 분류 및 17종 교과서 영역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7종 중학교 음악 교과서 내의 국악 가창곡은 가곡, 시조, 판소리, 민요, 창작곡, 전래동요, 무가, 범패, 가야금병창, 단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수록된 국악 가창곡은 민

47) 심미선(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 국악 가창 내용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요 <진도아리랑>으로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어 100%를 차지했다. 또한 국악 가창곡 가사, 무가, 범패, 잡가가 한 교과서에 수록되어 각 5.9%를 나타낸다. 둘째, 17종 교과서를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별로 비율을 나타낸 결과, 표현 영역에서는 출판사명 「교학사(이흥수 외)」 교과서가 86.4%를 나타내 가장 높게 차지하였고, 감상영역에서는 출판사명 「경기도교육청」 교과서가 34.9%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생활화 영역은 출판사명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8.7%를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교과서에는 표현 영역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으며, 생활화 영역은 다소 적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음악 교과서 영역별 개발 시 생활화 영역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이서아(2014)⁴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 17종 비교분석 : 국악 가창 중심으로”에서 중학교 음악과 교과서 17종을 대상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국악 가창곡이 어느 정도 수록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학습활동에서 분석 요소에 따라 국악을 반영하여 적합한 국악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종 교과서의 국악 가창 장르별 악곡의 수는 민요 > 창작동요 > 판소리 > 가곡 > 시조 순으로 많이 실려 있었으며 민요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교학사, (주)박영사, 성안당 3곳의 출판사는 시조를 다루지 않았으며 교학사와 비상교육은 창작 국악곡을 전혀 수록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민요의 지역별 악곡 수에는 동부 민요 65곡, 경기민요 54곡, 남도민요 44곡, 서도민요 30곡, 제주민요 25곡으로 동부 민요에 편중 현상이 보였다. 셋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17종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국악의 특징 중 하나인 시김새를 곡마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대체로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불러보거나 발림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볼 수 있도록 국악 가창

48) 이서아(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 17종 비교분석 :국악 가창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곡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악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국악 가창곡 구성이 필요하고, 포괄적인 국악 교육을 위해 교사는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김연지(2018)⁴⁹⁾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1 분석 - 국악 가창 중심으로-”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1 국악 가창 내용을 중심으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별 내용 및 14종 음악 교과서1의 국악 가창 수록곡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1 내 국악 가창곡으로 가곡, 시조, 잡가, 범패,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단가, 창작곡, 전래동요가 수록되었다. 둘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별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비율을 살펴본 결과, 표현 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비상교육」 90%, 감상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아침나라」 46.2%, 생활화 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박영사」 20.8%이다. 셋째, 교과서를 국악 가창 분류별로 나누어 각 교과서의 곡목 당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곡 <태평가>와 <동창이 밝았느냐>가 21.43%, 시조 <동창이>가 50%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판소리 「사랑가」가 35.71%, 창작곡 <오나라>가 50%, 민요 <진도아리랑>과 <너영나영>이 6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음악 교과서에 영역별 내용을 개선할 때 표현 영역 중 창작영역과 생활화 영역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기의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 영역을 분석한 것으로 전반적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내용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49) 김연지(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1 분석 -국악 가창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가창곡의 비중과 종류,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국악 가창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중 무작위로 선택된 2종, 총 45권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10회에 걸쳐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쓰인 중학교 음악 교과서는 무려 800여 권⁵⁰⁾이다. 모든 교과서를 구하기가 어려워 2차 교육과정부터 2020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를 교육과정별로 2종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1종밖에 구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1종만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교육과정 (사용 시기)	교과서 발행체제	출판사	학년	출판연도	저자
2차 (1963~1973)	검정	일진 출판사	1, 2, 3	1968	서수준
		일한도서출 판사	1, 2, 3	1966	최영환, 권길상
3차 (1973~1981)	문교부 저작	문교부	1, 2, 3	1979	서울교육대학 1종도서(음악) 연구개발위원회

50) 현경실(2014).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내용 변천 연구**.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제71집. p.85.

4차 (1981~1987)	검정	삼화서적 주식회사	1, 2, 3	1984	이상덕
		학연사	1, 2, 3	1984	오동일
5차 (1987~1992)	검정	시사영어사	1	1989	김용진, 강순기, 변훈
			2	1990	
			3	1991	
		(주) 지학사	1	1989	정영택, 허화병
			2	1990	
			3	1991	
6차 (1992~1997)	검정	도서출판 장원	1	1995	류덕희
			2	1996	
			3	1997	
		음악춘추사	1	1995	양재무
			2	1996	
			3	1997	
7차 (1997~2008)	검정	두산	1	2001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2	2002	
			3	2003	
		(주) 지학사	1	2001	윤명원, 김영희
			2	2003	
			3	2003	
2007 개정 (2008~2013)	검정	금성출판사	1	2010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
			2	2011	
			3	2012	
		더텍스트	1	2010	김미숙, 임강운, 이호경, 김혜선
			2	2011	
			3	2013	
2009 개정 (2013~2017)	인정	(주) 금성	중학교 1~3학년 (학년 군)	2013	김용희, 김신영, 현경실,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 오누리
		(주) 미래엔	중학교 1~3학년 (학년 군)	2013	장기범, 임원수, 홍종건, 윤성원, 김경태

2015 개정 (2018~)	인정	(주) 금성	중학교 1~3학년 (학년 군)	2018	김용희, 김신영, 현경실,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
		(주) 지학사	중학교 1~3학년 (학년 군)	2018	정길선, 강세연, 곽은순, 황병숙, 박경준, 엄숙용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가창곡의 비중과 종류,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교과서 분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첫째, 국악 가창곡의 종류에 따른 비중 변화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가창 제재곡과 참고곡을 포함하여 곡의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국악 가창곡의 종류는 국악을 다룬 기초 이론서(이성천의 「국악통론」, 서한범의 「국악개론」, 현경실의 「전통음악으로의 초대」)를 참고하여 가곡, 시조, 판소리, 민요, 잡가, 기타로 분류하고, 결과는 백분율로 나타내어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하였다. 다음 <표 2>는 국악 가창곡의 종류별 분석기준이다.

<표 2> 국악 가창곡의 종류별 분석기준

국악 가창곡의 종류	내용
가곡	북천이 맑다커늘,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편수대엽 나무도, 편수대엽 모란은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소년 행락이 다 진커든, 청산리 벽계수야
민요	강강술래, 강원도아리랑, 거문도뱃노래, 경북궁타령, 구아리랑, 군밤타령, 궁초땡기, 금강산타령, 금다래궁, 까투리타령, 꽃분네야, 남도 방아타령, 너영나영, 노랫가락, 농부가, 날리리야, 니리구얼싸, 도라지타령, 둥당애타령, 등타령, 문놀소리, 몽금포타령, 물레타령, 밀양아리랑, 박연폭포, 뱃노래, 범벅타령, 베틀가, 부여 바심소리, 사발가, 사설난봉가, 산염불, 상주 모심기, 새야 새야, 새타령, 신고산타령, 싸름, 아리랑, 액막이타령, 양류가, 양산도, 어휘싸호, 예농데농, 오돌또기, 오봉산타령, 옹헤야, 울산아가씨, 이야흥타령, 이어도사나, 자진강강술래, 자진농부가, 정선아리랑, 제주도 자장가, 진도아리랑, 천안삼거리, 콩 꺾자 콩 꺾자, 쾌지나칭칭나네, 통영 개타령, 풍구타령, 풍년가, 한강수타령, 한오백년, 해주 아리랑, 훨훨이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춘향가 중 '썩대머리',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 캔디타령(창작판소리), 흥보가 중 '비단타령', 흥보가 중 '화초장타령'
가야금병창	내 고향의 봄, 수궁가 중 '고고천변', 호남가
창작 국악곡	가시버시사랑, 개구리 소리, 김장하는 날, 꿈 보따리 희망 보따리, 끼리끼리, 나물 타령, 난감하네, 농가월령가, 농악, 당징지, 대금 소리, 모내기, 반딧불, 봄, 부모노래, 사물놀이, 산도깨비, 새 쫓는 소리, 생일 전날, 소금 장수, 아름다운 나라, 어디로 갈거나, 예약의 노래, 우리 장단 배워보자,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임금님의 행차, 창극 토끼, 용궁에 가다 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콩새야 팔새야, 타령, 탈춤 추세, 풍년놀이

둘째,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가창 제재곡 중 가장 많이 수록된 국악 가창곡의 주요 학습활동 내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육과정별로 꾸준히 등장하는 국악 가창곡 종류는

민요이며 그중 10회 이상 수록된 곡은 ‘옹헤야’,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닐리리아’, ‘몽금포타령’, ‘한강수타령’, ‘진도아리랑’이다. 다음 <표 3>은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국악 가창곡이다.

<표 3>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국악 가창곡

번호	곡명	수록 횟수
1	동부 민요 ‘옹헤야’	10회
2	동부 민요 ‘한오백년’	
3	동부 민요 ‘신고산타령’	11회
4	경기민요 ‘닐리리아’	12회
5	서도민요 ‘몽금포타령’	
6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13회
7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14회

교육과정별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국악 가창곡 7곡을 학습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권덕원 외 3명의 「국악교육론」에서 제시된 국악 가창교육의 기본적인 학습요소, 국악 기악 지도 방법 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다음 <표 4>는 국악 가창곡의 학습 요소별 분석기준이다.

<표 4> 국악 가창곡의 학습 요소별 분석기준

번호	학습 요소	세부 학습 요소 내용
1	노래 부르기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2	악기연주	제재곡의 장단 알고 부르기
		장구 장단 치기
		단소 연주하기
3	신체 표현	신체 표현하기
4	음악 만들기	가사 지어 / 바꾸어 부르기
		가락 지어 / 바꾸어 부르기
5	감상	감상하기

IV.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 비교분석

1.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비중 변화

1)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전체 비중 변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가창곡의 종류에 따라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전체 가창곡 중 국악 가창곡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비중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비중

교육과정	출판사	전체 가창곡 수	국악 가창곡 수	비중 (%)	
2차	일진출판사	152	4	2.63	4.55
	일한도서출판사	170	11	6.47	
3차	문교부	142	21	14.78	14.78
4차	삼화서적 주식회사	102	10	9.80	11.09
	학연사	105	13	12.38	
5차	시사영어사	97	10	10.30	10.70
	지학사	99	11	11.11	
6차	도서출판 장원	89	18	20.22	23.59
	음악춘추사	115	31	26.96	
7차	두산	84	21	25	29.01
	지학사	109	36	33.02	
2007 개정	금성출판사	104	29	27.88	30.74
	더텍스트	119	40	33.61	
2009 개정	금성출판사	75	21	28	23.88
	미래엔	86	17	19.76	
2015 개정	금성출판사	58	18	31.03	30.7
	지학사	79	24	30.37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비중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교육과정 4.55%, 3차 교육과정 14.78%, 4차 교육과정 11.09%, 5차 10.70%이며 6차 교육과정에서 23.59%로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비중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는 2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의 음악과 교육에서는 주로 전통음악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감상, 다른 나라 음악과의 비교, 전통음악의 특징 파악하기가 제시되었지만 6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전통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함양에 이바지한다.’라고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에 서술된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7차 29.01%, 2007 개정 교육과정 30.74%, 2009 개정 교육과정 23.88%, 2015 개정 교육과정 30.7%로 나타났다.

2)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 종류에 따른 비중 변화

(1) 가곡

가곡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었다.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곡 제재곡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곡 제재곡

교육과정 제재곡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합계
북천이 많다커늘	·	·	·	·	·	·	·		1	1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	·	·	·	·	·	1	2	1	4
편수대엽 나무도	·	·	·	·	·	·	·	1	·	1
편수대엽 모란은	·	·	·	·	·	·	·	1	·	1
계	0	0	0	0	0	0	1	4	2	7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곡의 횟수를 살펴보면, 2007 개정 1회, 2009 개정 4회, 2015 개정에서는 2회로 나타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록된 횟수가 제일 많다. 수록된 곡을 살펴보면, ‘북천이 많다커늘,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편수대엽 나무도, 편수대엽 모란은’이며 최초로 수록된 곡은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이다. 이 곡은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4회 수록되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이 수록된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는 농가의 이른 아침 정경을 그린 내용의 가곡으로 섬세하고 절제된 시김새가 더해져 담담한 멋을 자아내는 곡이다. 이 곡은 조선 후기의 문신 약천 남구만의 시조를 가사로 하여 관현악 반주와 함께 다채로운 가락으로 표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악곡이다. 또한 중요 무형 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2) 시조

시조는 2차, 4차, 5차,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 곡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최초 수록은 3차 교육과정이다. 이후 6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었다.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제재곡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제재곡

교육과정 제재곡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합계
동창이 밝았느냐	·	1	·	·	1	·	2	·	2	4
소년 행락이 다 진커든	·	·	·	·	·	·	1	·	·	1
청산리 벽계수야	·	·	·	·	·	·	·	2	·	2
합계	0	1	0	0	1	0	3	2	2	9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의 횟수를 살펴보면, 3차 1회, 6차 1회, 2007 개정 3회, 2009 개정 2회, 2015 개정에서는 2회로 나타나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록된 횟수가 제일 많다. 수록된 곡을 살펴보면, ‘동창이 밝았느냐, 소년 행락이 다 진커든, 청산리 벽계수야’이며 최초로 수록된 곡은 ‘동창이 밝았느냐’이다. 이 곡은 3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6회 수록되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이 수록된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는 조선 숙종 때의 문인 남구만이 관직에서 물러나 전원생활을 즐기며 농촌의 풍경과 근면한 생활을 노래한 전통 성악곡이다.

(3) 민요

민요는 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고 있다.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 제재곡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 제재곡

교육과정 제재곡명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합계
강강술래	1	·	·	·	1	1	·	1	1	5
강원도아리랑	1	·	·	·	2	2	2	1	1	9
거문도뱃노래	·	1	1	1	·	·	·	·	·	3
경북공타령	·	·	·	·	1	·	1	·	·	2
구아리랑	·	·	·	·	·	·	·	·	1	1
군밤타령	1	1	2	·	1	·	1	2	1	9
궁초맹기	·	·	·	·	·	1	·	·	·	1
금강산타령	·	·	·	·	·	1	·	·	·	1
금다래궁	·	·	·	·	·	·	1	1	·	2
까투리타령	·	·	·	·	1	1	·	·	·	2
꽃분네야	·	·	·	·	·	·	1	·	·	1
남도 방아타령	·	·	·	·	·	1	·	·	·	1
너영나영	·	·	·	·	·	1	2	1	2	6
노랫가락	·	·	·	·	·	1	·	·	·	1
농부가	1	·	·	·	1	·	·	1	·	3
닐리리야	1	1	2	2	1	1	2	1	1	12
니리구얼싸	·	·	·	·	·	1	·	·	·	1
도라지타령	·	1	2	2	2	1	1	·	·	9
등당애타령	·	·	·	·	·	·	1	·	·	1
등타령	·	·	·	·	·	1	·	·	·	1
몬놀소리	·	·	·	·	·	1	·	·	·	1
몽금포타령	2	1	1	·	2	2	2	·	2	12
물레타령	·	·	·	·	·	1	·	·	·	1
밀양아리랑	·	1	2	1	2	1	·	·	1	8
박연폭포	·	·	·	·	2	·	·	·	·	2
뱃노래	1	·	·	·	2	3	·	·	1	7
범벅타령	·	·	·	1	1	·	·	·	·	2
베들가	1	1	·	·	1	1	·	·	·	4

부여 바심소리	·	·	·	·	·	·	1	·	·	1
사발가	·	·	·	·	1	·	·	·	·	1
사설난봉가	·	·	·	·	1	·	·	·	·	1
산염불	·	·	·	·	1	·	·	·	·	1
상주 모심기	·	·	·	·	·	1	2	1	·	4
새야 새야	·	1	·	·	1	·	·	·	·	2
새타령	·	1	1	1	1	1	·	·	·	5
신고산타령	2	1	1	1	2	2	2	·	·	11
싸름	·	·	·	·	·	1	1	1	·	3
아리랑	·	1	2	2	·	·	·	1	·	6
액막이타령	·	·	·	·	·	1	·	·	·	1
양류가	·	1	·	·	·	·	·	·	·	1
양산도	·	·	·	·	1	·	·	·	·	1
어휘싸호	·	·	·	·	·	1	·	·	·	1
에농데농	·	·	·	·	·	·	1	·	·	1
오돌또기	·	1	1	·	1	1	·	·	1	5
오봉산타령	1	1	·	1	2	·	·	·	·	5
옹헤야	·	·	·	1	2	2	2	1	2	10
울산아가씨	·	·	·	·	1	1	·	·	·	2
이야흥타령	·	1	·	·	·	·	·	1	·	2
이어도사나	·	·	·	·	·	1	2	·	·	3
자진강강술래	·	·	·	·	·	·	1	1	2	4
자진농부가	·	·	·	·	·	1	1	1	·	3
정선아리랑	·	·	·	·	1	1	·	·	·	2
제주도 자장가	·	·	·	·	·	1	·	·	·	1
진도아리랑	·	·	2	2	2	2	2	2	2	14
천안삼거리	·	1	1	1	2	·	1	·	·	6
콩 꺾자 콩 꺾자	·	·	·	·	·	1	·	·	·	1
쾌지나칭칭나네	1	·	·	·	1	1	1	1	1	6
통영 개타령	·	·	·	·	·	·	·	2	1	3
풍구타령	·	·	·	·	·	·	1	·	·	1
풍년가	1	1	2	2	2	1	·	·	·	9
한강수타령	·	1	1	1	2	2	2	2	2	13
한오백년	1	1	2	2	2	1	1	·	·	10
해주 아리랑	·	·	·	·	·	1	2	1	2	6
힐힐이	·	·	·	·	·	·	1	·	·	1
합계	15	19	23	21	46	46	38	23	24	255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의 횟수를 살펴보면, 2차 15회, 3차 19회, 4차와 2009 개정 23회, 5차 21회, 6차와 7차는 46회, 2007 개정 38회, 2015 개정 24회로 나타나며, 6차와 7차 교육과정이 같은 횟수로 제일 많다. 가장 많이 수록된 민요는 ‘진도아리랑’으로 총 14회 수록되었으며, 한강수타령(13회), ‘닐리리야, 몽금포타령(12회)’, ‘신고산타령(11회)’, ‘옹헤야, 한오백년(10회)’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록된 민요 ‘진도아리랑’은 전라남도 진도군 일대에서 만들어진 아리랑으로 삶의 애환과 해학이 담긴 노랫말을 세마치장단과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로 다채롭게 표현한 민요이다.

(4) 판소리

판소리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판소리 제재곡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판소리 제재곡

교육과정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합계
제재곡명										
춘향가 중 ‘사랑가’							2	2	1	5
춘향가 중 ‘쑥대머리’							1			1
춘향가 중 ‘천자뒤풀이’							1			1
캔디타령(창작판소리)								1		1
흥보가 중 ‘비단타령’									1	1
흥보가 중 ‘화초장타령’							1	1	1	3
합계	0	0	0	0	0	0	5	4	3	12

교육과정별 판소리의 수록 횟수를 살펴보면, 2007 개정 5회, 2009 개정 4회, 2015 개정 3회로 나타나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록된 횟수가 제일 많다. 수록된 곡을 살펴보면, ‘춘향가 중 ‘사랑가’, 춘향가 중 ‘쑥대머리’, 춘향

가 중 ‘천자뒤풀이’, 캔디타령(창작판소리), 흥보가 중 ‘비단타령’, 흥보가 중 ‘화초장타령’이며 가장 많이 수록된 판소리 곡은 ‘춘향가 중 사랑가’이다. 이 곡은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5회 수록되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이 수록된 판소리 ‘춘향가’는 남원의 퇴기인 월매의 딸 춘향이 남 원 부사의 아들인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의외의 이별을 한 뒤로, 신 임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여 옥에 갇히자,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구해준다는 내용이며⁵¹⁾, ‘춘향가 중 사랑가’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문답하며 경쾌하 고 아기자기하게 노래하는 대목이다.

(5) 가야금병창

가야금병창은 7차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각각 한 번씩 수록되 었다.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야금병창 제재곡은 다음 <표 10> 과 같다.

<표 10>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야금병창 제재곡

교육과정 제재곡명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합계
내 고향의 봄	·	·	·	·	·	1	·	·	·	1
수궁가 중 고고천변	·	·	·	·	·	·	1	·	·	1
호남가	·	·	·	·	·	·	·	·	1	1
합계	0	0	0	0	0	1	1	0	1	3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야금병창의 횟수를 살펴보면,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각각 1회씩 나타났다. 수록된 곡을 살펴보면, ‘내 고향

51) 김영운(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p.253.

의 봄, 수궁가 중 고고천변, 호남가'이다.

'내 고향의 봄'은 가야금병창 명인 박귀희가 작곡한 곡이며, '수궁가 중 고고천변'은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으로, 별주부가 용왕의 병에 쓸 토끼의 간을 구하러 바깥세상에 나왔다가 산천의 경치에 감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호남가'는 단가로 호남 지방의 지명과 풍경을 노래한 곡으로, 가야금병창으로 많이 연주된다.

(6) 창작 국악곡

창작 국악곡은 2차, 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서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최초 수록은 3차 교육과정이다. 그 후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었다.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창작국악 제재곡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창작 국악 제재곡

교육과정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합 계
제재곡명										
가시버시사랑	·	·	·	·	·	·	1	·	1	2
개구리 소리	·	·	·	·	·	1	·	1	1	3
김장하는 날	·	·	·	·	·	·	·	·	1	1
꿈 보따리 희망 보따리	·	·	·	·	·	·	·	1	·	1
끼리끼리	·	·	·	·	·	·	·	·	1	1
나물 타령	·	·	·	·	·	1	·	·	·	1
난감하네	·	·	·	·	·	·	·	·	1	1
농가월령가	·	·	·	·	·	1	·	·	·	1
농악	·	·	·	·	·	1	·	·	·	1
당징지	·	·	·	·	·	·	1	·	·	1
대금 소리	·	·	·	·	·	·	1	·	·	1
모내기	·	·	·	·	·	1	·	·	·	1
반딧불	·	·	·	·	·	·	1	·	·	1

봄	·	·	·	·	·	·	1	1	·	2
부모노래	·	·	·	·	·	1	·	·	·	1
사물놀이	·	·	·	·	·	·	1	·	·	1
산도깨비	·	·	·	·	·	·	2	·	2	4
새 쫓는 소리	·	·	·	·	·	·	·	1	·	1
생일 전날	·	·	·	·	·	·	1	·	·	1
소금 장수	·	·	·	·	·	·	1	·	1	2
아름다운 나라	·	·	·	·	·	·	·	1	·	1
어디로 갈거나	·	·	·	·	·	·	1	·	·	1
예약의 노래	·	·	·	·	·	1	·	·	·	1
우리 장단 배워보자	·	·	·	·	·	·	1	·	·	1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	·	·	·	·	1	·	·	·	1
임금님의 행차	·	·	·	·	·	1	1	·	1	3
창극 토끼, 용궁에 가다 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	·	·	·	·	·	·	1	·	1
콩새야 팔새야	·	·	·	·	·	1	1	·	·	2
타령	·	1	·	·	·	·	1	·	·	2
탈춤 추세	·	·	·	·	·	·	1	·	·	1
풍년놀이	·	·	·	·	·	·	1	·	·	1
합계	0	1	0	0	0	10	17	6	9	43

교육과정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창작국악의 횟수를 살펴보면, 3차 1회, 7차 11회, 2007 개정 18회, 2009 개정 6회, 2015 개정 9회로 나타나며 7차 교육과정에서 수록된 횟수가 제일 많다. 가장 많이 수록된 창작 국악곡은 산도깨비이다. 이 곡은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4회 수록되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이 수록된 산도깨비는 국악 실내악단 슬기둥의 대표곡으로 도깨비 이야기를 국악 장단과 가락에 맞추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다.

2.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학습활동 변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가창 제재곡 중 가장 많이 수록된 국악 가창곡의 주요 학습활동 내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육과정별로 꾸준히 등장하는 국악 가창곡 종류는 민요이며 10회 이상 수록된 곡은 ‘옹헤야’,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닐리리야’, ‘몽금포타령’, ‘한강수타령’, ‘진도아리랑’이다. 다음 <표 10>은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민요이다.

1) 동부 민요 ‘옹헤야’

동부 민요 ‘옹헤야’는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10회 수록되었다. 이 곡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해하고 노래 부르는 활동, 다양한 악기의 반주로 단모리 장단을 익히거나 노래 부르는 활동, 메기고 받는 부분의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는 활동’ 등이 있다. 학습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래 부르기

①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2. 향토적이고 흥겨운 시김새를 살려 불러 보자.

시김새를 살려서

어 켈 시 구 (옹 헤야) 어 켈 시 구 (옹 헤야)

<향토 민요> 제한된 일정한 지역에서 불려지고, 소박하고 향토적인 민요를 말한다.
 <통속 민요>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해 불리워져서 널리 알려진 민요를 말한다.

<그림 1> 6차 교육과정 음악준추사 2학년

1 메나리조의 음계를 이해하고 시김새를 살려 표현해 보자.

메나리조의 음계

미 솔 라 도 레

시김새 표현

옹 헤야 보 리 - 밭 에

약간 강하게 짙게 떨어 준다. 귀듯이 표현한다.

메나리조
 동무김원도, 경상도, 황경도) 민요에 나타나는 음계이다. '미, 솔, 라, 도, 레'의 5음을 주로 사용하며, 가락이 내려올 때 '라, 솔, 미'의 진행을 많이 보이는 편이다.

후시김새란?
 곡 안에서 선율을 이루는 어떤 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 주는 장식음이나 율강이가 매우 짙은 진가락을 말한다.

<그림 2>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 1학년

<그림 1>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향토적이고 흥겨운 시김새를 살려 부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고, 제재곡의 악보에 시김새를 살려서 불러야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노래를 부를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속 민요인 ‘옹헤야’와 향토민요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림 2>를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메나리조의 음계를 이해하고 시김새를 살려 표현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이며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메나리조와 시김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악보를 제시하였고,

메나리조와 시김새의 뜻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두 교육과정에서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6차 교육과정에서는 시김새를 살려서 불러야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나타내었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김새를 살려서 불러야 하는 부분을 ‘약간 강하게, 짧게 떨어진다, 깎듯이 표현한다. 라는 제시어를 추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3] 메기고 받는 형식은 우리 민요가 갖고 있는 특징의 하나이다. 두 패로 나누어서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불러 보자.

옹 헤야 옹 헤야 어절시구옹 헤야
저절시구옹 헤야 잘도논다옹 헤야

<그림 3> 6차 교육과정 장원 2학년

표현 1. 메기고받는 형식을 살려 흥겹게 불러 보자.

메기는소리 (독창) 받는소리 (제창) 메기는소리 (독창) 받는소리 (제창)

유동적 고정적 유동적 고정적

<그림 4> 2009 개정 교육과정 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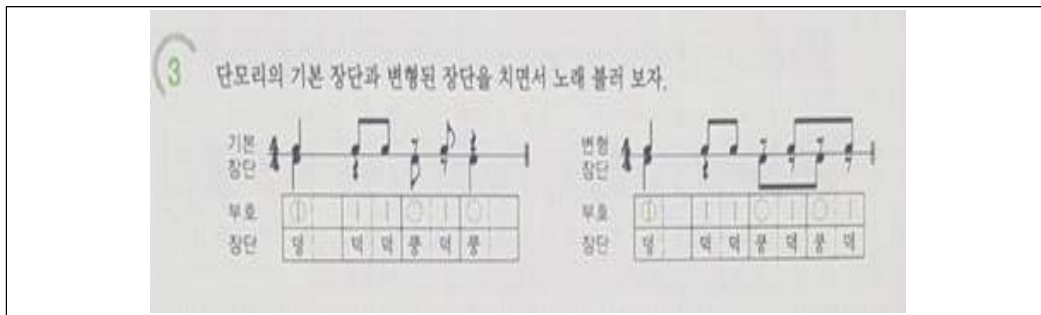
<그림 3>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두 패로 나누어서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부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옹헤야’의 악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여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메기고 받는 형식이 우리 민요의 특징임을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를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메기고 받는 형식을 살려 흥겹게 불러보기’가 주요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재미있는 그림 자료를 통해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특징(독창, 제창, 유동적, 고정적)을 안내하고 있다.

두 교육과정에서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6차 교육과정에서는 악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여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특징(독창, 제창, 유동적, 고정적)을 그림 자료를 통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악기연주

① 제재곡의 장단 알고 부르기



<그림 5> 7차 교육과정 두산 2학년



<그림 6>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 1학년

<그림 5>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모리 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된 장단을 치면서 노래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고,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가 나란히 제시되어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차이점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그림 6>을 살펴보면, 2007 교육과정에서는 ‘단모리 장단에 맞추어 도리깨질 동작과 함께 제재곡을 노래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이며 단모리 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장구 악보 · 부호표 · 구음보와 함께 도리깨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제시되었다.

두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알고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만 제시되었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모리 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장구 악보 · 부호표 · 구음보와 함께 도리깨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제시됨으로써 통합적인 학습활동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구 장단 치기


표현 2. 단모리장단과 변형 장단을 치며 장단의 세를 표현하여 보자.

The image displays musical notation and drum patterns for '단모리장단' (Danmori Jangdan). It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기본 장단' (Basic Jangdan) and '변형 장단' (Modified Jangdan). Each section shows a musical staff with notes and rests, and a corresponding drum pattern represented by a sequence of circles and vertical lines. The drum patterns are labeled with '땡' (Taeung), '덕' (Deuk), '콩' (Kong), and '땡' (Taeung) to indicate the sound effects.

<그림 7> 2009 개정 교육과정 금성

2 단모리장단의 변형 장단을 알아보고, 장구로 연주해 보자.


기본장단



부호 ① | | | ② | ②

구음 텅 텅 텅 텅 텅 텅


변형장단



부호 ① ① | ② | ②

구음 텅 텅 텅 텅 텅

변형 장단은 기본 장단의 범위 안에서 악곡의 흐름에 따라 변형하여 연주하는 장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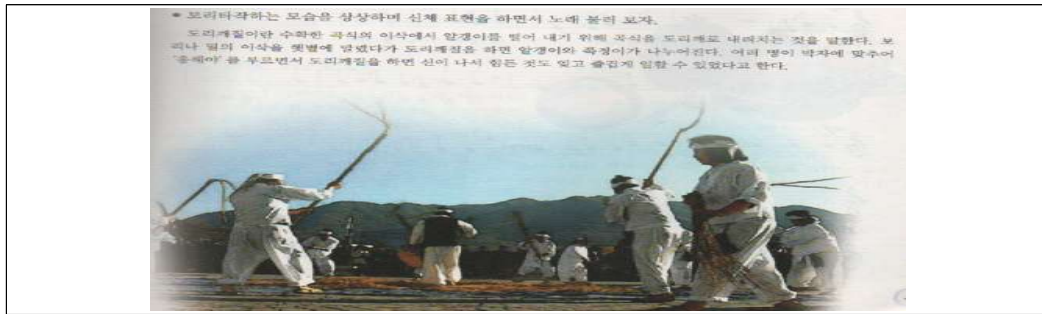
<그림 8> 2015 개정 교육과정 금성 음악①

<그림 7>을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 금성 교과서에서는 ‘단모리 장단과 변형 장단을 치며 장단의 세를 표현하여 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가 제시되어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치며 장단의 세를 느껴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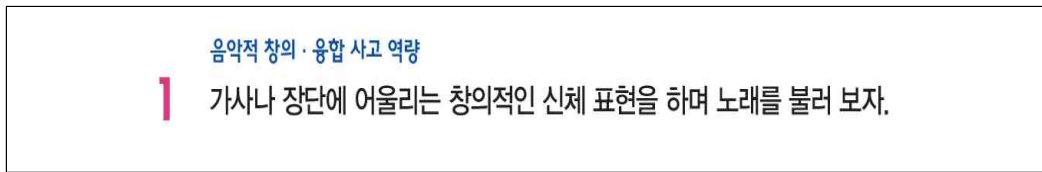
<그림 8>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금성 교과서에서는 ‘단모리 장단의 변형 장단을 알아보고, 장구로 연주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으며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와 함께 변형 장단의 개념 설명이 친근한 학생의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두 교육과정에서 ‘장구 장단 치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만 제시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모리 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의 장구 악보 · 부호표 · 구음보와 함께 변형 장단의 개념 설명이 친근한 학생의 그림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체 표현



<그림 9> 2007 개정 교육과정 더텍스트 2학년



<그림 10>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 음악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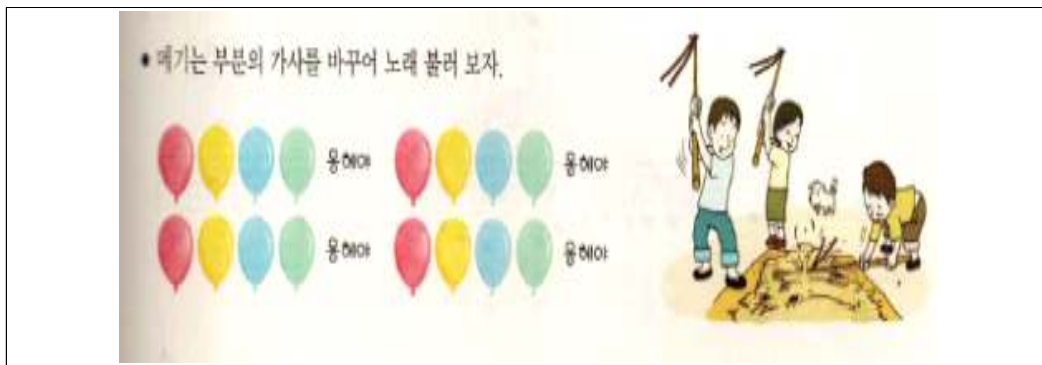
<그림 9>를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신체 표현을 하면서 노래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도리깨질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이 도리깨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사나 장단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하며 노래를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별다른 설명 없이 학습활동만 제시되었다.

두 교육과정에서 ‘신체 표현’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리깨질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이 도리깨질에 대한 한 가지 행동으로만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사나 장단에 어울리는 다양한 신체 표현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음악 만들기

① 가사 지어 부르기



<그림 11> 2007 개정 교육과정 더텍스트 2학년



<그림 12> 2009 개정 교육과정 금성

<그림 11>을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으며 ‘옹헤야’ 가사를 바꾸어야 하는 메기는 부분을 풍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2>를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실 청소”를 주제로 가사를 새로 지어 노래하여 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교실 청소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사들을 학생들의 말풍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그림 자료로 제시되었다.

두 교육과정에서 ‘가사 지어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옹헤야’의 메기는 부분에 가사를 바꾸어야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주제를 제시하여 가사를 새로 지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동부 민요 ‘한오백년’

동부민요 ‘한오백년’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총 10회 수록되었다. ‘한오백년’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메기고 받는 형식을 파악하여 노래 부르거나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는 활동, 세마치장단 · 중모리장단 · 느린 중모리장단 · 도드리장단을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활동, 제재곡의 음계나 특징을 파악하여 노래 부르는 활동’ 등이 있다. 학습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래 부르기

① 시김새 살려 노래 부르기

2. 계면조 5음 음계를 파악하고, 시김새를 살려 불러 보자.

아무 렴 그렇 - 지- 그렇 구 말- 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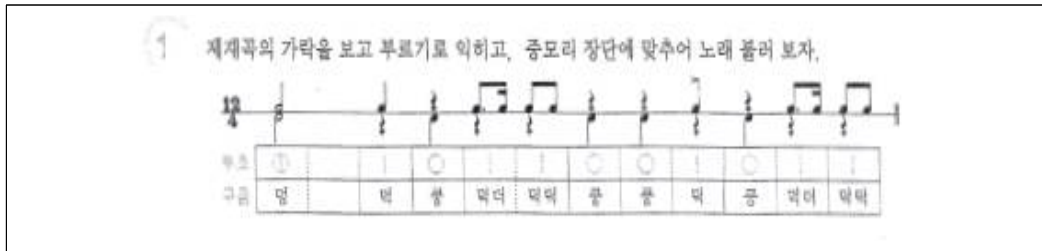
5음 음계 (계면조) 라 도 레 미 솔

<그림 13> 6차 교육과정 음악춘추사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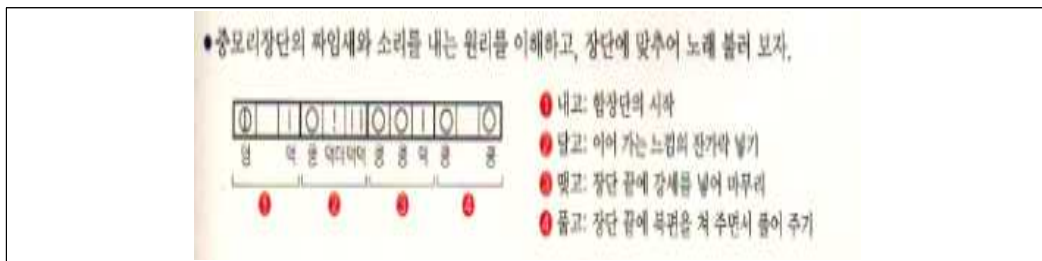
<그림 13>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계면조 5음 음계를 파악하고, 시김새를 살려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으며 제재곡의 악보에 시김새를 살려서 불러야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5음 음계 계면조를 악보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5음 음계 계면조에 대한 음계 구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악기연주

① 제재곡의 장단 알고 부르기



<그림 14> 7차 교육과정 두산 2학년



<그림 15> 2007 개정 교육과정 더텍스트 1학년

<그림 14>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의 가락을 보고 부르기’로 익히고,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가 나란히 제시되었다.

<그림 15>를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모리장단의 짜임새와 소리를 내는 원리를 이해하고,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와 함께 내고 · 달고 · 땃고 · 풀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학생들이 중모리장단의 짜임새를 파악하는데 쉽고 더불어 내고 · 달고 · 땃고 · 풀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알고 부르기’ 학습활동

을 비교했을 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만 제시하였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와 함께 내고 · 달고 · 맺고 · 풀고에 대한 설명이 추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구 장단 치기

1. 주요 리듬을 이해하고, 세마치 장단을 구음과 무릎장단 또는 장구로 익혀보자.

(주요리듬)

(세마치 장단)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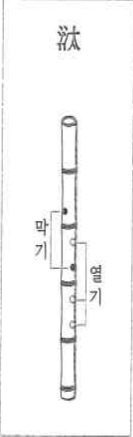
(구 음) 덩 덩 덩쿵덕 | 덩 덩 덩쿵덕 | 덩덩 덩 덩쿵덕 | 덩 덩쿵덕

<그림 16> 6차 교육과정 음악춘추사 1학년

<그림 16>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주요리듬을 이해하고, 세마치 장단을 구음과 무릎장단 또는 장구로 익혀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주요리듬, 세마치장단 장구 악보, 부호표, 구음보가 제시되어 학생들이 제재곡의 주요리듬 이해하고 세마치장단을 구음과 무릎장단 또는 장구로 치면서 제재곡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단소 연주하기

3 정간보를 보면서 제재곡을 단소로 연주해 보자.



淋	원	淋	한	汰	그	汰	아	한 의 백 년
淋	성	淋	오	汰	랑	汰	무	
濼	화	淋	백	濼	구	汰	림	
淋	화	淋	년	濼	말			
淋	요	汰	살	淋	구	淋	그	
		濼	자	汰			랑	
		濼	는					
△		淋	데	淋		淋	지	
		濼		汰		濼		

<그림 17> 7차 교육과정 두산 2학년

<그림 17>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간보를 보면서 제재곡을 단소로 연주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으며 ‘중청태주(汰)’음을 단소로 내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학생들이 쉽게 단소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음악 만들기

① 가사 지어 부르기

3 이 민요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유롭게 사설을 지어서 메기고 받는 전통적인 노래 형식으로 불러 보자.

① 메기는 부분(독창) : '뒯동산 후원에 ~ 빌어 보자' 메기는 부분을 자유롭게 사설을 지어 돌아가며 메긴다.


② 받는 부분(계창) : '아무렴 그렇지 ~ 빌어-보세'

<그림 18> 6차 교육과정 도서출판 장원 1학년

<그림 18>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롭게 사설을 지어서 메기고 받는 전통적인 노래 형식으로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사설을 지어서 메기고 받는 전통적인 노래 형식을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가락 지어 부르기

4. 악곡의 음계를 사용하여 아래의 간단한 가락을 즉흥적인 표현으로 완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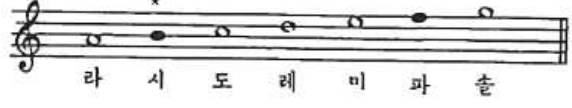


<그림 19> 5차 교육과정 지학사 2학년

<그림 19>을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악곡의 음계를 사용하여 아래의 간단한 가락을 즉흥적인 표현으로 완성하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악보에 간단한 가락을 지을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4) 감상

3. 악곡의 음계를 알아보고, 다음 민요를 감상해 보자.



① 강원도 아리랑
② 신고산타령

<그림 20> 5차 교육과정 지학사 2학년

<그림 20>을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악곡의 음계를 알아보고, 다음 민요를 감상하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재곡의 악곡의 음계와 같은 동부 민요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곡명이 제시되었다. 같은 동부 민요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감상을 통해서 학생들은 제재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3) 동부 민요 ‘신고산타령’

동부 민요 ‘신고산타령’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총 11회 수록되었다. ‘신고산타령’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자진 굿거리 · 자진모리장단 · 자진타령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활동, 제재곡을 이루는 음계를 파악하고 노래 부르는 활동’ 등이 있다. 학습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래 부르기

①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2. 제재곡을 시김새를 살려 불러보고, 음계구성을 파악해 보자.

시김새를 살려서

귀뚜라미-- 슬피울어 고향-생각이 나누-나--

5음음계 (계면조) 라 도 레 미 솔 (솔)음은 경과적으로만 사용되어, 주로 4음음계로 구성됨

<그림 21> 6차 교육과정 음악춘추사 2학년

③ 함경도 민요의 음계를 이해하고, 시김새를 살려 표현해 보자.

미 솔 라 도 테

귀뚜라미-- 슬피울어 어허야-- 더허야

플리너리는 가락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자.

<그림 22> 7차 교육과정 두산 3학년

2 리듬의 변화에 알맞은 장구 장단을 연주하며 창의적으로 불러 보자.

기악
가창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우수수 지고-요-- 귀뚜라-미-- 슬피울어

당김음이 있는 마디

<그림 24> 7차 교육과정 두산 3학년

<그림 23>과 <그림 24>를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 ‘메기고 받는 부분을 흥겹게, 자진모리장단에 맞추어 불러보기’와 7차 교육과정 ‘리듬의 변화에 알맞은 장구 장단을 연주하며 창의적으로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재곡의 부분 악보와 함께 장구 악보가 함께 나타나 있어 장구를 치면서 제재곡의 악보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알고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6차 교육과정에서는 장구를 치면서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장구 장단을 치면서 리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장구 장단 치기

2. 자진 굿거리 장단의 속도를 이해하고, 노래에 맞추어 쳐 보자.

자진 굿거리 $\frac{12}{8}$ 닝기덕 너러러롱 덕 둥 너러러 (굿거리보다 조금 빠른 것을 자진 굿거리라고 한다.)

<그림 25> 5차 교육과정 지학사 3학년

② 자진굿거리 장단을 능숙하게 쳐 보자.

자진굿거리 $\frac{12}{8}$ 딩 기덕 둥 너러러 러롱 덕 둥 너러러
※ 굿거리보다 조금 빠른 장단을 자진굿거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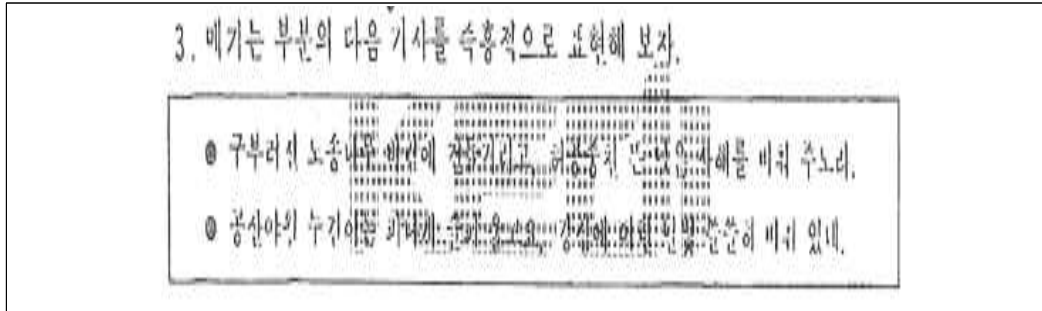
<그림 26> 6차 교육과정 도서출판사 장원 2학년

<그림 25>와 <그림 26>를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 ‘자진 굿거리장단의 속도를 이해하고, 노래에 맞추어 쳐보기’와 6차 교육과정 ‘자진 굿거리장단을 능숙하게 쳐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진 굿거리 장구 악보와 간단한 설명을 통해 자진 굿거리장단을 장구로 쳐볼 수 있으며 자진 굿거리가 굿거리보다 조금 빠른 장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교육과정에서 ‘장구 장단 치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5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진 굿거리장단의 속도를 느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장구 장단을 능숙하게 연주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음악 만들기

① 가사 지어 부르기



<그림 27> 5차 교육과정 지학사 3학년

<그림 27>을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메기는 부분의 다음 가사를 즉흥적으로 표현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민요 노래의 가사 내용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기만의 가사를 참신하게 지어 부르면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4) 경기민요 ‘닐리리야’

경기민요 ‘닐리리야’는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총 12회 수록되었다. ‘닐리리야’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여러 가지 악기로 굿거리장단을 익힌 후 노래 부르는 활동, 제재곡의 음계와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가락이나 음계를 만들어보거나 노래 부르는 활동’ 등이 있다. 학습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래 부르기

① 메기고 받는 노래 부르기

2. 메기는 부분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경쾌하게 부분 2부 합창으로 불러 보자.

받는 부분(제창)		메기는 부분(독창)	
닐리리야	닐리리야	육동이 소물고	밭둑길로 온다.
받는 부분(제창)		메기는 부분(독창)	
닐-닐리리-	닐리-리야	해가저는	서쪽하늘
받는 부분(제창)		메기는 부분(독창)	
저녁을 비껴어	왕금소가	닐리리리	닐리-리야

<그림 28> 5차 교육과정 지학사 2학년

<그림 28>을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메기는 부분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경쾌하게 부분 2부 합창으로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으며 학생들이 서로 바꾸어 가면서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 악기연주

① 제재곡의 장단 알고 부르기



<그림 29> 5차 시사영어사 2학년



<그림 30>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 1학년

<그림 29>를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 가락 아래에 굿거리장단을 적고 치면서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재곡 일부 악보가 제시되었다.

<그림 30>을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굿거리장단을 율동과 함께 익힌 후, 장단에 맞추어 제재곡을 노래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굿거리장단의 부호표와 율동 사진이 함께 제시되어 학생들이 율동을 익혀서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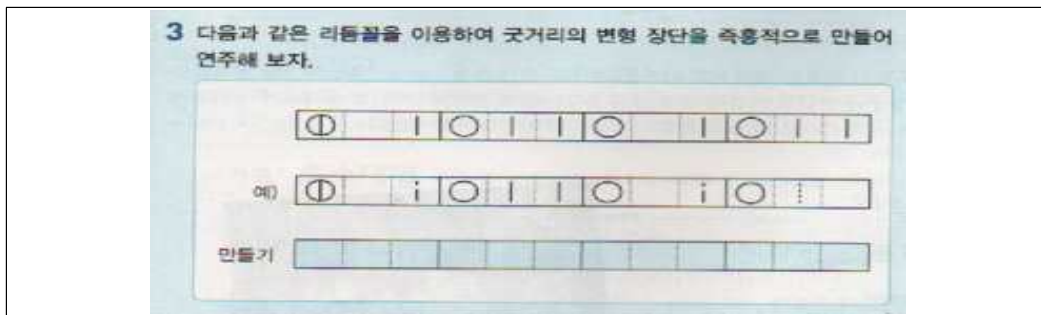
두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알고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5차 교육과정에서는 굿거리장단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활동만 제시되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굿거리장단을 치면서 율동과 함

께 제시되어 통합적인 학습활동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구 장단



<그림 31> 5차 교육과정 지학사 2학년



<그림 32>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 1학년

<그림 31>을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 악곡에 맞추어 굿거리장단을 쳐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재곡의 부분 악보와 장구 악보가 함께 제시되어 제재곡에 맞춰 학생들이 굿거리장단을 쳐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를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듬꼴을 이용하여 굿거리의 변형 장단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연주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굿거리의 변형 장단의 예시를 들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변형 장단을 만들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두 교육과정에서 ‘장구 장단 치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5차 교육과정에

서는 제재곡에 맞춰 학생들이 굿거리장단을 쳐보는 활동만 제시되었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굿거리장단의 변형 장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활동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단소 연주하기

2.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를 파악하여 정간보로 노래 불러보고, 단소로 연주해 보자.

無	닐	汰	목	淋	닐
		汰	등	淋	리
		汰	이	淋	리
仲	닐	汰	소	淋	야
無	리	漢	물		
汰	리	無	고		
無	닐	漢	발	淋	닐
漢	리	漢	쪽	淋	리
無	리	無	길	淋	리
林	리	林	로	淋	리
			은	淋	리
仲	야	仲	라	淋	리
			다		
			음		
△		△		淋	리
				仲	야

음계 (5음계) → 솔 라 도 레 미 솔 라

(율명) → 仲 林 無 漢 汰 仲 淋

중 임 무 황 태 중 임

굿거리 장단 (조금 빠르게)

덤 기덕덤 더러러쿵 기덕쿵 더러러

중심 리듬

정간보

<그림 33> 6차 교육과정 음악춘추사 1학년

<그림 33>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를 파악하여 정간보로 노래 불러보고, 단소로 연주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와 장단이 악보와 간단한 설명과 정간보에 제재곡의 가사와 율명, 계이름이 제시되어 학생들이 제재곡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단소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음악 만들기

① 가사 지어 부르기

1. 제재곡의 선율에 맞추어 여러 가지 가사를 지어 창의적으로 불러 보자.

가 창	받는 부분	넠리리아 넠리리아 니나노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넠 넠리리 넠리리아
	메기는 부분	청사초롱 불밝혀라 잊었던 낭만이 다시 돌아온다	넠 넠리리 넠리리아
		전세계로 흩어졌던 우리의 민족이 다시 돌아온다	

<그림 34> 7차 교육과정 지학사 2학년

<그림 34>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의 선율에 맞추어 여러 가지 가사를 지어 창의적으로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메기는 부분에 가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빈칸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가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가락 지어 부르기

5. 악곡의 음계를 사용하여 한도락 형식의 가락을 지어 보자.

<그림 35> 5차 교육과정 지학사 2학년

<그림 35>를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악곡의 음계를 사용하여 한도막 형식의 가락을 지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재곡 부분 악보에 리듬꼴을 함께 학생들이 가락을 지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감상

4. <베를가>, <군밤 타령>, <경복궁 타령>을 감상해 보고, 경기 민요의 특징을 느껴 보자.

<그림 36> 5차 교육과정 지학사 2학년

<그림 36>을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 ‘<베를가>, <군밤타령>, <경복궁 타령>을 감상해보고, 경기민요의 특징을 느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제시된 감상곡을 듣고 경기민요의 특징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5) 서도민요 ‘몽금포타령’

서도민요 ‘몽금포타령’은 2차, 3차, 4차, 6차,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총 12회 수록되었다. ‘몽금포타령’에 제시된 주요 학습활동은 ‘중모리장단 · 굿거리 · 엇중모리장단 등으로 맞추어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는 활동, 제재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시김새의 특징을 파악하여 노래 부르는 활동’ 등이 있다. 학습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래 부르기

①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황해도 민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시김새를 살려 노래를 불러 보자.

음을 자연스럽게 혼들어 준다. 순간적으로 음을 꾸며 준다.

금 일도- 에 려요- 브전네-- 자알 상 곳 마아 루-에 --

<그림 37> 7차 교육과정 지학사 1학년

음악적 감성 역량

1 서도 민요의 떠는 방법을 알아보고, 시김새의 특징을 살려 불러 보자.

열어 소리를 내는 창법을 겹소리라고 하고, 높은 소리를 약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발성을 속소리라고 한다.



<그림 38>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 음악①

<그림 37>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황해도 민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시김새를 살려 노래를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재곡 부분 악보에 시김새를 살려 불러야 하는 부분의 악보와 간단한 설명이 제시하였다.

<그림 38>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도민요의 떠는 방법을 알아보고, 시김새의 특징을 살려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서도민요를 노래할 때의 발성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노래 부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교육과정의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 부분 악보에 시김새를 살려 불러야 하는 부분의 악보와 간단한 설명이 제시되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도민요를 노래할 때의 발성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노래 부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제재곡을 중모리 장단($\frac{12}{4}$ 박자)과 엇중모리 장단($\frac{6}{4}$ 박자)에 맞추어 각각 불러 보자.

장단 구분	중모리 장단	엇중모리 장단
오선보		
정간보	① 1 0 1 1 0 0 1 0 1 1 1 1	① 0 1 0 1 0 1 0 1 0 1 0 1 0
구름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빠르기	여유 있게 맛을 살려 부른다. (♩ = 72~108)	

<그림 41> 7차 교육과정 지학사 1학년

<그림 40>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메기고 받는 부분에 시김새를 넣어 변화 있게 표현해보고, 중모리장단과 굿거리장단의 어울림을 비교하여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재곡 부분 악보에서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중모리장단과 굿거리장단 장구 악보와 함께 제시되어 학생들이 여러 장단을 쳐보면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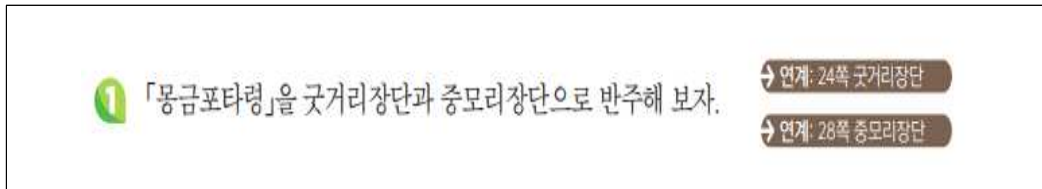
<그림 41>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을 중모리장단과 엇중모리장단에 맞추어 각각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중모리장단과 엇중모리장단을 나눠 오선보 · 정간보 · 구름 · 빠르기 등을 표로 나타내어 학생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모리장단과 엇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불러보면서 두 가지의 장단의 차이점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알고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 부분 악보에서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중모리장단과 굿거리장단 장구 악보만 제시되었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엇중모리장단을 나눠 오선보 · 정간보 · 구름 · 빠르기 등을 표로 나타내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구 장단 치기



<그림 42> 6차 교육과정 도서출판 장원 2학년



<그림 43> 2015 개정 교육과정 금성 음악②

<그림 42>를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모리장단을 쳐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중모리장단의 장구 악보가 제시되어 학생들이 장구로 중모리장단을 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3>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몽금포타령」을 굿거리장단과 중모리장단으로 반주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별다른 설명 없이 연계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두 교육과정의 ‘장구 장단 치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모리장단의 장구 악보만 제시되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굿거리장단과 함께 중모리장단이 추가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단소 연주하기

3. 제재곡을 조옮김하여 불러 보고, $\frac{12}{8}$ 박자의 장식음에 따른 시김새의 어울림을 정간보를 보고 단소로 표현해 보자.

林	네	無	님
無		林	만
林		林	나
		汰	보
		演	—
		無	—
			—
			—

◀장식음과 시김새▶

(가볍게) 시김새 (경쾌하게)

님 만 나 보 - - 겠 네 - - - -
無 林 林 汰 演 無 林 無 演 無 林

<그림 44> 6차 교육과정 음악춘추사 2학년

<그림 44>를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을 조옮김하여 불러보고, 8분의 12박자의 장식음에 따른 시김새의 어울림을 정간보를 보고 단소로 표현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장식음과 시김새가 악보와 정간보로 울명과 단소 시김새가 함께 제시되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감상

● 명창들이 부르는 수심가를 들어 보고 서도 민요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자.

전통 음악 듣기 : 국립 국악원(e-국악 아카데미) www.egugak.go.kr

<그림 45> 2007 개정 교육과정 더텍스트 1학년

<그림 45>를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명창들이 부르는 수심가를 들어보고 서도민요의 특징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전통음악 듣기 사이트가 안내되어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음악을 듣고 서도민요의 특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경기민요 ‘한강수타령’은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총 13회 수록되었다. ‘한강수타령’에 제시된 주요 학습 활동은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는 활동, 제재곡의 음계를 파악하는 활동’ 등이 있다. 학습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래 부르기

① 메기고 받으며 부르기

3 노래의 말붙임새에 어울리게 굿거리장단을 연주하며, 메기고 받는 소리로 불러 보자.

<그림 46>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 음악①

<그림 46>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래의 말 붙임새에 어울리게 굿거리장단을 연주하며, 메기고 받는 소리로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이 학습활동만 제시되었다.

(2) 악기연주

① 제재곡의 장단 알고 부르기

2 굿거리 장단을 익숙하게 칠 수 있도록 한 다음, 장구 장단에 맞추어 불러 보자.

(굿거리 장단) ① 굿거리 장단의 아홉 번째 박을 세게 치는 것에 유의한다.
 ② 구음을 하면서 장구를 연습한다.

<그림 47> 6차 도서출판 장원 3학년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이해하고, 장단의 세를 살려 노래해 보자.

	가사: 한 - 강 수 - (>) 라
기본 장단	부호: ① i ○ ! ○ i ○ !
	구음: 덩 기덕 쿵 더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
	가사: 수 상 선 타 고 (>) 서 -
변형 장단	부호: ① ① ① ① i ○ !
	구음: 덩 덩 덩 덩 기덕 쿵 더러러

*** 장단의 세**
 장구나 북으로 연주하는 장단의 강세이다. 장단별로 고유한 장단의 세가 있으며, 노래의 말뭉침새가 달라지면 장단의 세도 바뀔 수 있다.

<그림 48> 2015 개정 교육과정 금성 음악②

<그림 47>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굿거리장단을 익숙하게 칠 수 있도록 한 다음, 장구 장단에 맞추어 부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굿거리장단을 칠 때의 유의점과 굿거리장단을 장구 악보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48>를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이해하고, 장단의 세를 살려 노래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기본 장단의 가사 · 부호 · 구음보, 변형 장단의 가

③ 단소 연주하기

③ 노래에 맞추어 단소를 불어 보자.

<그림 50> 6차 교육과정 도서출판 장원 3학년

<그림 50>을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노래에 맞추어 단소 불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이 학습활동만 제시되었다.

(3) 신체 표현



<그림 51> 2007 개정 교육과정 더텍스트 2학년

<그림 51>를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부채춤을 감상한 후 한강수타령에 맞추어 다양한 신체 표현을 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부채춤을 하는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이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7)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은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총 14번 수록되었다. '진도아리랑'에 제시된 주요 학습 활동은 '악기를 이용하여 세마치장단이나 중모리장단을 익힌 후에 그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활동, 명창들의 '진도아리랑'이나 영화 '서편제' 중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을 감상하면서 다른 지역의 민요를 비교하거나 남도민요의 멋을 느껴보는 활동' 등이 있다. 학습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래 부르기

① 시김새 살려 부르기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를 파악하고,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전라도 민요의 시김새를 넣어 불러 보자.



미 라 시

미는 굳게 띠는 울
라는 땀으로 내는 울
사는 죽는 울

<그림 52> 7차 교육과정 두산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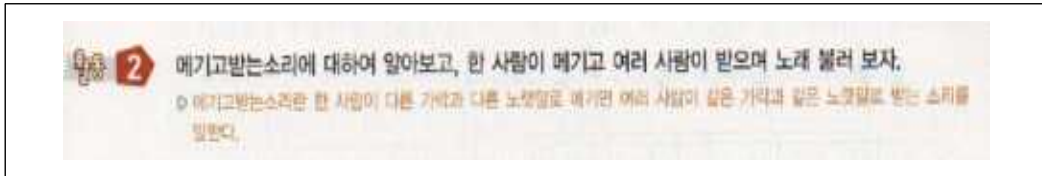
<그림 53>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 3학년

<그림 52>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를 파악하고,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전라도 민요의 시김새를 넣어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를 악보와 간단한 설명이 제시되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3>을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손과 가락선 악보를 활용하여 육자배기 조의 시김새를 익혀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손과 가락선 악보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시김새를 떠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교육과정에서 ‘시김새 살려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를 악보와 간단한 설명으로만 제시하였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손과 가락선 악보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메기고 받는 노래 부르기



<그림 54> 2009 개정 교육과정 미래엔

<그림 54>를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 사람이 메기고 여러 사람이 받으며 노래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한 설명이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 악기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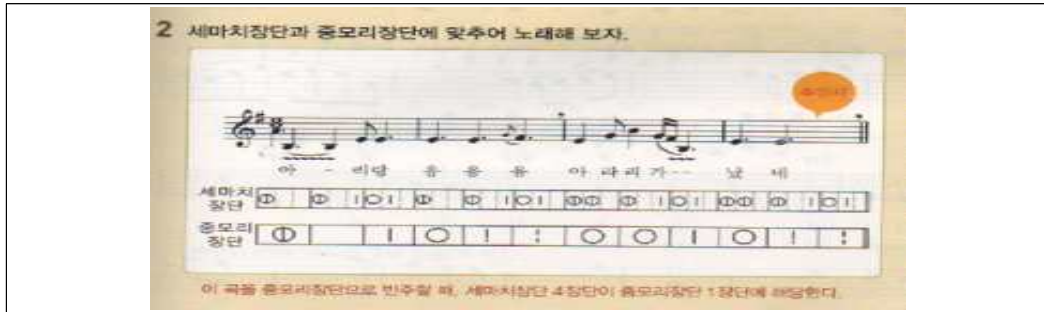
① 제재곡의 장단 알고 부르기

1. 전라도 민요의 특징적인 창법을 익혀,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 구성지게 불러 보자.

특징

- 떠는 목 : 격렬하게 굽게 떨어준다.
- 평으로 내는 목 : 평탄하게 낸다.
- 꺾는 목 : 꾸밈음을 내고 가볍게 떨어준다.

<그림 55> 6차 교육과정 음악춘추사 3학년



<그림 56>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 3학년

<그림 55>를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라도 민요의 특징적인 창법을 익혀,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구성지게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전라도 민요의 특징을 악보와 간단한 설명이 나타났으며, 제재곡의 부분 악보와 함께 세마치장단이 제시되어 전라도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세마치장단을 치면서 제재곡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6>을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마치장단과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노래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재곡의 부분 악보와 함께 세마치장단, 중모리장단을 부호표로 나타내어 2가지의 장단을 장구로 치면서 제재곡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알고 부르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재곡의 부분 악보와 함께 하나의 장단만 제시하였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마치장단과 함께 제시된 중모리장단을 추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구 장단 치기

1. 다음 가락에 세마치 장단을 적고 구음을 붙인 다음 장구 등의 여러 가지 리듬 악기로 익숙하게 쳐 보자.

장구
구음 ()

* 전라도 민요는 떠는 목과 짚는 목을 많이 사용하고, 경기 민요는 단순하고 경쾌하면서 서정적이다.

<그림 57> 5차 교육과정 시사영어사 3학년

2 변형 장단을 익혀 제재곡의 적당한 곳에 반주를 해 보자.

더	덩		덩	덕(따)	킁	덕(따)
---	---	--	---	------	---	------

중모리 장단(84쪽 참조)에도 맞추어 노래 불러 보자.

<그림 58> 7차 교육과정 두산 3학년

<그림 57>를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 가락에 세마치장단을 적고 구음을 붙인 다음 장구 등의 여러 가지 리듬 악기로 익숙하게 쳐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악보 일부분 · 장구 악보 · 구음보와 함께 전라도 민요의 특징을 경기민요와 비교하여 간단한 설명으로 제시되어 장구를 치면서 전라도 민요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경기민요와 차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8>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변형 장단을 익혀 제재곡의 적

당한 곳에 반주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장구 악보 · 부호표 · 구음보가 제시되어 장구를 칠 때 쉽게 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교육과정에서 '장구 장단 치기'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5차 교육과정에서는 악보 일부분 · 장구 악보 · 구음보와 함께 하나의 장단만 제시하였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마치장단의 변형 장단이 추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음악 만들기

① 가락 바꾸어 부르기

2. 첫부분의 가락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노래 불러 보자.

The image shows two musical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첫부분 가락' (Original Melody) and the bottom staff is labeled '바꾼 가락' (Modified Melody). Both staves are in 8/8 time and G major. The original melody consists of eighth notes: G4, A4, B4, C5, B4, A4, G4, F4, E4, D4, C4. The modified melody consists of quarter notes: G4, A4, B4, C5, B4, A4, G4, F4, E4, D4, C4. The lyrics '아라랏, 아라랏, 아라랏, 아라랏' are written below the notes.

<그림 59> 5차 교육과정 지학사 3학년

<그림 59>를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첫 부분의 가락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노래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재곡의 부분 악보에 첫 부분 가락과 바꾼 가락이 제시되어 창의적으로 가락을 바꾸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4) 감상

4. 다음 남도 민요의 감상을 통하여 <진도 아리랑>을 더욱 구성지게 불러 보자.

The image shows two musical staves. The first staff is for 'Yukja Baegi' (육자배기) in the 'Jeonmyang' (전양) style, with lyrics '산 - - 이 - - - 로 구 나 - - 해 -'. The second staff is for 'Ganggang Surae' (강강술래) in the 'Jungdoori' (중도리) style, with lyrics '강 - - 강 - - - 술 래 - - -'.

<그림 62> 5차 교육과정 지학사 3학년



<그림 63> 2015 개정 교육과정 금성 음악①

<그림 62>를 살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 남도민요(육자배기, 강강술래)의 감상을 통하여 <진도아리랑>을 더욱 구성지게 불러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육자배기와 강강술래를 들은 후에 진도아리랑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고, 진도아리랑을 더 구성지게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3>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화 「서편제」 중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을 감상하면서 남도민요의 멋을 느껴보기’가 주요 학습활동으로 특별한 설명이 학습활동만 제시되었다.

두 교육과정에서 ‘감상’ 학습활동을 비교했을 때, 5차 교육과정에서는 같은

지역의 민요를 감상한 후, 진도아리랑을 부를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한 감상 활동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가창곡의 비중과 종류,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국악 가창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국악 가창곡의 비중 변화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전체 비중을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이 변화되면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교육과정 4.55%, 3차 교육과정 14.78%, 4차 교육과정 11.09%, 5차 10.70%이며 6차 교육과정에서 23.59%로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비중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7차 29.01%, 2007 개정 교육과정 30.74%, 2009 개정 교육과정 23.88%, 2015 개정 교육과정 30.7%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과정별 국악 가창곡의 종류(가곡, 시조, 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창작 국악곡)에 따른 제재곡 및 수록 횟수를 살펴보면, 가곡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어 총 7회 수록되었다. 가장 많이 수록된 가곡은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이며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4번 수록되었다. 시조의 최초 수록은 3차 교육과정이며 2차, 4차, 5차,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 곡도 수록되지 않았다. 다시 6차 교육과정에 수록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어 9회 수록되었다. 가장 많이 수록된 시조는 ‘동창이 밝았느냐’이며 3차,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6번 수록되었다. 민요는 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어 총 225회 수록되었다. 가장 많이 수록된 민요는 ‘진도아리랑’이며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14회 수록되었다. 판소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수록

된 바가 없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여 총 12회 수록되었다. 가장 많이 수록된 판소리는 ‘춘향가 중 사랑가’이며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5번 수록되었다. 가야금병창은 7차, 2007 개정, 2015 개정 각각 한 번씩 수록되어 총 3회 수록되었다. 나타났다. 수록된 곡을 살펴보면, ‘내 고향의 봄, 수궁가 중 고고천변, 호남가’이다. 창작 국악곡은 최초 3차 교육과정에서 ‘타령’이 수록되었으며, 2차, 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서는 수록되지 않다가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수록되어 총 44회 수록되었다. 가장 많이 수록된 창작 국악곡은 ‘산도깨비’로 2007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4번 수록되었다.

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국악 가창곡의 수록 횟수는 총 329회이며 종류별로 살펴보면 민요가 225회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가야금병창과 시조가 3회로 가장 적게 수록되었다. 민요 중 10회 이상 수록된 곡은 ‘옹헤야, 한오백년(10회)’, ‘신고산타령(11회)’, ‘닐리리야(12회)’, ‘몽금포타령, 한강수타령(13회)’, ‘진도아리랑(14회)’ 순이다.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수록 횟수가 가장 많은 국악 가창곡 7곡(‘옹헤야,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닐리리야, 몽금포타령, 한강수타령, 진도아리랑’)을 중심으로 학습 요소별 주요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 부르기 학습활동에서는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와 ‘시김새를 살려 부르기’가 주로 제시되었다.

둘째, 악기연주 학습활동에서는 모든 곡에 ‘장구 장단 치기’가 제시되었고, ‘제재곡의 장단 알고 부르기’가 다섯 곡에, ‘단소 연주하기’는 네 곡에 제시되었다.

셋째, 신체 표현하기 학습활동에서는 동부 민요 ‘옹헤야’에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신체로 표현해보기’ 활동이 제시되었으며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에서는 부채춤을 보고 한강수타령의 음악에 맞춰 신체를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넷째, 음악 만들기 학습활동에서는 '가사 지어 바꾸어 부르기'가 다섯 곡에 제시되었고, '가락 지어 바꾸어 부르기'는 세 곡에서 제시되었다.

다섯째, 감상 학습활동에서는 주로 제재곡과 같은 지역의 민요를 감상하거나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에서는 서편제의 영화 장면에서 나타난 제재곡을 감상하도록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악 가창곡의 수록이 민요에 치우쳐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국악 가창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종류별 비중 편차를 줄여 골고루 수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악 가창곡의 학습활동에서 '빠르게 변화시켜 부르기'나 '놀이하며 부르기' 등 좀 더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국악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음악적 학습 요소를 익히고 학생들의 삶 속에서 노래의 의미와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 교육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융합 교육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악 교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창 교육에서 다른 교과와의 융합이 시도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개정 교육과정」
국립국악원(2002). 국악교육체계화연구가창편. 서울: 도서출판.
권덕원 외 3명(2016). 제3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김영운(2015). 국악개론. 파주: 음악세계.
문교부 고시 제442호 「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7호 「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20호 「제2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25호 「제3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5호 「제1차 교육과정」
민경훈 외 11명(2019). 3판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서한범(2014). 개정판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윤명원 외 11명(2018). 국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이성천 외 3명(2009).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교과서

교육과정	출판사	학년	출판연도	저자
2차	일진출판사	1, 2, 3	1968	서수준
	일한도서출판사	1, 2, 3	1966	최영환, 권길상
3차	문교부	1, 2, 3	1979	서울교육대학 1종도서(음악) 연구개발위원회
4차	삼화서적 주식회사	1, 2, 3	1984	이상덕
	학연사	1, 2, 3	1984	오동일
5차	시사영어사	1	1989	김용진, 강순기, 변훈
		2	1990	
		3	1991	
	(주) 지학사	1	1989	정영택, 허화병
		2	1990	
		3	1991	
6차	도서출판 장원	1	1995	류덕희
		2	1996	
		3	1997	
	음악춘추사	1	1995	양재무
		2	1996	
		3	1997	
7차	두산	1	2001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2	2002	
		3	2003	
	(주) 지학사	1	2001	윤명원, 김영희
		2	2003	
		3	2003	
2007 개정	금성출판사	1	2010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
		2	2011	
		3	2012	
	더텍스트	1	2010	김미숙, 임강온, 이호경, 김혜선
		2	2011	
		3	2013	
				김미숙, 김혜선, 권혜인

2009 개정	(주) 금성	중학교 1~3학년(학 년 군)	2013	김용희, 김신영, 현경실,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 오누리
	(주) 미래엔	중학교 1~3학년(학 년 군)	2013	장기범, 임원수, 홍종건, 윤성원, 김경태
2015 개정	(주) 금성	중학교 1~3학년(학 년 군)	2018	김용희, 김신영, 현경실,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
	(주) 지학사	중학교 1~3학년(학 년 군)	2018	정길선, 강세연, 곽은순, 황병숙, 박경준, 엄숙용

논문

김가현(2012).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제재곡 비교연구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악 · 가창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지(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1 분석 -국악 가창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선(2008).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미선(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 국악 가창 내용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서아(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 17종 비교 분석 :국악 가창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현경실(2014).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내용 변천 연구.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제71집

ABSTRAC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change of curriculum

Kim - Do Hyu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by analyzing the importance, type, and learning cont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from the 2nd curriculum to the current revised curriculum in 2015.

The results of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importa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propor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y curriculum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radually increased as the curriculum changed from the second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the 2nd curriculum, the proportion was 4.55%, 14.78% in the 3rd curriculum, 11.09% in

the 4th curriculum, 10.70% in the 5th curriculum, and 23.59% in the 6th curriculum, which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vious curriculum. And the 7th 29.01%, the 2007 revised curriculum 30.74%, the 2009 revised curriculum 23.88%, an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30.7%.

Second, from the second curriculum to the revised 2015 curriculum, the numbe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ongs was 329 times, and if you look at each type, folk songs were included the most with 225 times, and Gayageum Byeongchang and Sijo with the lowest number of three times.

From the second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ain learning activities by learning elements based on 7 song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highest number of time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learning activities of singing, 'Singing with leading and receiving the songs' and 'Singing Sigimsae' were mainly presented.

Second, in the musical instrument playing learning activity, 'playing Jang-gu with rhythm was presented in all songs, and singing the educational song with knowing the rhythm was in five songs, and playing Danso with four songs.

Third, in the learning activity for expressing the body, the eastern folk song 'Ongheya' was presented for the activity of 'Imagine the appearance of barley threshing and express it with your body' and the Gyeonggi folk song 'Han River Taryeong' was performed to

watch the fan dance and express your body with the music of Han River Taryeong

Fourth, in the music making learning activities, the activity 'make the lyrics and exchange it with someone' was presented in five songs, while 'make a melody and exchange it with someone' was presented in three songs.

Fifth, in appreciation learning activities, it was suggested to appreciate local folk songs same with the educational songs in the text book and in the Namdo folk song 'Jindo Arirang', it was presented to appreciate the sanctioned song that appeared in the movie scene of Seopyeonje.